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 영역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수산·해운 전공 교사의 인식

류 대 성[†]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Recognition on th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Vocation Education Division CSAT by Fisheries and Shipping affiliate Teachers

Dae-Sung RYU[†]
(Inchon Marine Sience High Schoo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fishery and maritime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recognition on the outcomes and future agenda. In addition, it delineates the importance of the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being carried out for 10 years in the College Scholastic Achievement Test (CSAT). In order to gather relevant information, 76 teachers who work in 12 different fishery and shipping vocational high schools around the country were surveyed.

The findings of the fishery and maritime department teachers' recognition on the matter are as follows: First, the biggest impact the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in the CSAT had was on the promotion of continuing education and on the fulfillment on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desire to compete and enter universities. Second, the CSAT with the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allowed students to choose a variety of paths after high school whether they be full-time employments or pursuing a degree in universities. Third, the biggest obstacle for the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in the CSAT is in the most metropolitan universities not honoring the CSAT scores as a criterion in the admission process.

Key words : College Scholastic Achievement Test(CSAT),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Business Education, Fishery and Shipping, 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s,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신입생 미달 등 실업계 고등학교가 겪고 있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0년 1월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 대책’을 추진하였다(Lee, K. H., 2002). 이후 2001년 11월 계속교육과 중국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실업교육 육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01년 12월에 ‘05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안’을 발표함으로써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되었다(Kim, J. G. · Lee, J. B., 2005). 직업 교육의 중심축이 지식 기반 사회로의 변화와 함께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확대되고 있고, 상당수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 Corresponding author: 070-4636-3460, rdaesung@naver.com

현실 속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의 자긍심과 학습 의욕을 높여주기 위하여 수능에서 직업탐구 영역 신설이 절실하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수능에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Nam, M. H., 2002). 즉, 수능에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된 목적은 내적·외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을 활성화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전공 관련 계열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Kim, J. G. · Lee, S. J. · Kim, B. S. · Lee, K. H. · An, J. M., 2004).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도입이 만 10년을 넘어선 이 시점에서 성과와 과제에 대한 수산·해운 전공 교사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대입정책 개선과 2017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 이후의 시험 시행에 대한 방향성 제시 및 중등 직업교육의 취업 및 계속 교육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해운계열 전공 교사가 인식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 영역 시행의 성과는 무엇이며, 성과들의 영향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수산·해운계열 전공 교사가 인식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 영역의 계속 시행을 위한 과제는 무엇이며, 과제들의 중요성 정도는 어떠한가?

II.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현황

1. 도입 배경

실업계 고등학교(현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학생·학부모의 고등교육 수혜에 대한 욕구 증대, 직업교육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가속화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일반계 고등학교(현 일반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교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졌고, 신입생 미달 사태가 지속되면서 우수한 신입생 유치 및 정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Kim, J. G. et al., 2005).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고졸 수준의 기능 인력 양성과 중견 및 전문 기술자 양성을 위한 직업 기초 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등단계의 직업 교육 기관’으로 규정하면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 교육청, 학교, 학생 및 학부모, 교원단체, 경제단체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00년 1월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육부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 기존에 취업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던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을 진학을 위한 계속교육과 취업을 위한 중국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대학 입학의 문호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실업교육 육성 방안(2001. 11)’을 통해 수능에 실업계열 신설을 검토하기로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05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안(2001. 12)’에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 필수 과목을 포함하는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하였다(Kim, J. G. et al., 2005). 직업 교육의 중심축이 지식 기반 사회로의 변화와 함께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확대되고 있고, 상당수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의 자긍심과 학습 의욕을 높여주기 위하여 수능에서 직업탐구 영역 신설이 절실하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수능에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Nam, M. H., 2002).

2. 시험의 성격과 평가 목표

수능의 직업탐구 영역은 수능의 성격 및 직업

탐구 영역의 신설 취지,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에 따라 해당 전문 과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재를 바탕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 동일·유사계열 대학에 진학하여 전공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학습하고 더욱 발전 심화시킬 수 있는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직업탐구 영역의 시험은 다른 6개 영역에서 추구하는 고등 사고 능력의 측정과는 달리 실업계 고교의 계열 및 출제 범위 교과목들에 대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상 교육 목표에 따라 관련 교과목들과 관련된 주제와 소재를 활용하여 직업 기초 능력 및 동일계 대학에서 계열별 전문 지식을 심화연계시킬 수 있는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수능의 평가목표는 영역별로 이원분류표 상의 내용영역과 행동영역을 근거로 진술된다. 직업탐구 영역의 이원분류표에서는 출제할 문항 수, 내용영역별 문항 표집 계획 및 그 비중, 행동영역별 문항 표집 및 그 비중 등을 내용영역과 행동영역의 차원에서 문항 제작의 방향을 제시한다. 직업탐구 영역의 내용영역은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근거하여 추출한다. 직업탐구 영역 시험은 수능에 처음 도입되었던 2005학년도 수능부터 2013학년도 수능까지는 ‘기본 개념 및 원리, 법칙, 절차’ 등에 대한 ‘지식, 이해, 적용, 탐구’ 능력을 측정한다는 평가목표 하에 출제되었다. 이 시기 직업탐구 영역의 행동영역 기반이 되는 ‘지식, 이해, 적용’ 영역은 당시 직업교육 분야 및 전문계고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Bloom(1956)의 인지적 행동영역 분류 체계에 근간을 두고 설정되었다(Kim, J. G. et al., 2010). 이후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에 따라, 2014학년도 수능부터 직업탐구 영역의 평가목표는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기초하는 학문·이론, 실험·실습, 일상생활, 직장생활 등의 문제 상황을 소재로 교과 개념 및 원리에 대한 이해력과 문제

를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고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재설정되었다. 즉, 2014학년도 수능에서부터 직업탐구 영역 출제의 기본 방향은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위해 행동영역은 ‘개념 및 원리 이해, 문제 인식 및 명료화, 대안 탐색 및 선택, 대안 실행 및 적용, 대안 평가 및 일반화’ 등의 5개 분류 체계로 변화되어 적용되고 있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수산·해운계열 고등학교 12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산·해운계열 고등학교는 12개교이다. 이들 학교의 유형을 살펴보면 산업수요맞춤형고 3개, 특성화고 4개, 계열 혼합 특성화고 1개, 종합고 4개이다. 표본은 모집단 12개교의 수산·해운 전공 학과 수와 학급 규모 및 수산·해운 전공 교사 수를 감안하여 78명을 표집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을 발송하였고, 설문에 성실히 답변한 76명의 설문 결과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는데,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lassification		N=76	
		N	Ratio (%)
Area	Busan	12	15.8
	Incheon	27	35.5
	Chungcheong	12	15.8
	Gyeongsang	14	18.4
	Jeunla/Jeju	11	14.5
Area total		76	100.0
Teaching Career (year)	under 10	18	23.7
	over 10 ~ under 20	22	28.9
	over 20	36	47.4
Teaching Career (year) total		76	100.0
Subjects	Fisheries and Marine	45	59.2
	Sailing and Engine	21	27.6
	etc. (Food processing, Frozen)	10	13.2
Subjects total		76	100.0
School type	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s	25	32.9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51	67.1
School type total		76	100.0

2. 조사 도구

연구에 사용한 조사 도구는 자가 응답 형태의 설문지를 제작하여 수산·해운계열 전공 교사가 인식하는 수능 직업탐구 영역 시행의 성과는 무엇이며, 성과들의 영향 정도는 어떠한지와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계속 시행을 위한 과제는 무엇이며, 과제들의 중요성 정도는 어떠한지를 조사하였다. 선행 연구인 함승연(Hahm, S. Y., 2013-1)과 김진구(Kim, J. G. et al., 2014)의 조사 도구를 참고하여 수산·해운계열의 특성을 적용하여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직업탐구 영역의 성과와 중요성 정도에 대한 문항의 Cronbach's α 는 .924, 시행을 위한 과제와 중요성 정도에 대한 문항은 .740이다. 설문 문항은 영향 정도에 따라 5단계 Likert형 등간척도로 제작되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이메일을 통해 행하였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2개교의 수산·해운 전공 교사 78명에게 설문지를 발송(2014. 10. 6.)하였고 78명이 응답(2014. 10. 13.)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 보류 항목이 많았던 2장의 응답지를 제외하고 76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IBM SPSS 22.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집된 수산·해운 전공 교사의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인식 정도와 경향을 조사하기 위해 기술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분석하였고, 명목척도로 구성된 문항은 기술통계의 교차 분석을 통해 명목을 랩다로 설정하여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5단계 등간척도로 구성된 문항은 일원 분산 분석에 의한 F검정 및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한 다음 사후검정으로 등분산을 가정한 Scheffe를 유의 수준 .05로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성과

수능에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된 2005학년도 이후 10년간의 시행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수산·해운계열 전공 교사의 인식은 <Table 2>와 같다. 가장 큰 성과로는 '재학생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 및 현실적인 대학진학 욕구 충족.'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학생의 전문교과 중요성 인식 증대 및 학습의욕 고취.'(18%),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강조하는 교육 목적 구현.'(18%),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의 증가에 따라 학력 향상'(13%), '전문교과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선다형 문항개발능력) 신장'(11%), '지원 기피 현상 및 미달 사태 완화에 따른 모집 경쟁률 제고'(5%)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탐구 영역의 도입과 시행으로 특성화고 재학생의 계속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 대학 진학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고 이를 통해 전문교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어 학습의욕이 고취되었으며 특성화고 이것은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강조하는 특성화고 교육목적을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공부 못하고 문제아가 가는 학교라는 부정적인 인식 개선', '학교 설립 취지는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편향된 인식 개선', '전문교과 교사들의 전통적인 교과서 중심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의 항목에 대한 응답은 없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합계에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던 '재학생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 및 현실적인 대학진학 욕구 충족' 항목이 부산에서 세 번째, 인천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과 인천에서는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강조하는 교육 목적 구현'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산에서 동물로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의 증가에 따라 학력 향상' 항목이었다.

교직경력별로 살펴보면 10년 이하의 교사는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강조하는 교육 목적 구현’ 항목에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였고, 10년 이상과 20년 이상의 교사는 ‘재학생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 및 현실적인 대학진학 욕구 충족’ 항목에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여 교직 경력이 많을수록 특성화고의 교육 목적에서 계속교육 및 현실적인 진학 욕구 쪽으로 시각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이스터고 교사는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강조하는 교육 목적 구현’,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의 증가에 따른 학력 향상’, ‘재학생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와 대학진학에 대한 욕구의 충족’의 순으로 반응하였고, 특성화고 교사는 ‘재학생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와 대

학진학에 대한 욕구의 충족’, ‘전문교과의 중요성에 대한 재학생의 인식 증대 및 학습의욕 고취’, ‘전문교과 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 순으로 반응하였다. 이로써 수능 직업탐구 영역에 의해 마이스터고는 진학과 취업 동시 구현, 신입생 학력 향상 등의 항목에 관련된 성과가 나타났고, 특성화고는 계속교육 기회 확대, 학습의욕 고취, 교사 평가 전문성 향상 등의 항목에 관련된 성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선 취업 후 진학 정책의 적용 강도와 재학생의 학력 경향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의 결과 기대빈도가 5이하인 셀이 20%가 넘게 나타났으므로 집단 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χ^2 검정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Table 2> The Most Remarkable Outcomes of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for the Fisheries and Shipping Department of the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N(%)

Reas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Total
Variables	Industry	4(5.3)	10(13.2)	0(0.0)	0(0.0)	14(18.4)	22(28.9)	4(5.3)	14(18.4)	0(0.0)	8(10.5)	76(100.0)
	Busan	0(0.0)	4(33.3)	0(0.0)	0(0.0)	4(33.3)	2(16.7)	2(16.7)	0(0.0)	0(0.0)	0(0.0)	12(100.0)
	Incheon	2(7.4)	0(0.0)	0(0.0)	0(0.0)	8(29.6)	7(25.9)	1(3.7)	7(25.9)	0(0.0)	2(7.4)	27(100.0)
	Chungcheong	2(16.7)	4(33.3)	0(0.0)	0(0.0)	0(0.0)	2(16.7)	0(0.0)	2(16.7)	0(0.0)	2(16.7)	12(100.0)
	Gyeongsang	0(0.0)	2(14.3)	0(0.0)	0(0.0)	0(0.0)	4(28.6)	0(0.0)	4(28.6)	0(0.0)	4(28.6)	14(100.0)
	Jeunla/Jeju	0(0.0)	0(0.0)	0(0.0)	0(0.0)	2(18.2)	7(63.6)	1(9.1)	1(9.1)	0(0.0)	0(0.0)	11(100.0)
	under 10	2(11.1)	0(0.0)	0(0.0)	0(0.0)	10(55.6)	4(22.2)	0(0.0)	2(11.1)	0(0.0)	0(0.0)	18(100.0)
	over 10 ~ under 20	0(0.0)	4(18.2)	0(0.0)	0(0.0)	0(0.0)	8(36.4)	0(0.0)	6(27.3)	0(0.0)	4(18.2)	22(100.0)
	over 20	2(5.6)	6(16.7)	0(0.0)	0(0.0)	4(11.1)	10(27.8)	4(11.1)	6(16.7)	0(0.0)	4(11.1)	36(100.0)
	Fisheries and Marine Sailing and Engine etc.	2(4.4)	2(4.4)	0(0.0)	0(0.0)	8(17.8)	15(33.3)	2(4.4)	10(22.2)	0(0.0)	6(13.3)	45(100.0)
	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s	1(4.0)	5(20.0)	0(0.0)	0(0.0)	9(36.0)	5(20.0)	2(8.0)	2(8.0)	0(0.0)	1(4.0)	25(100.0)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3(5.9)	5(9.8)	0(0.0)	0(0.0)	5(9.8)	17(33.3)	2(3.9)	12(23.5)	0(0.0)	7(13.7)	51(100.0)
	Total	4(5.3)	10(13.2)	0(0.0)	0(0.0)	14(18.4)	22(28.9)	4(5.3)	14(18.4)	0(0.0)	8(10.5)	76(100.0)

Notes: 1) Reasons ① ~ ⑩

- ① Enhance recruiting competition according to the symptom mitigation to avoid the support and of the Specialized/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
- ② Improving achievement for Specialized/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 based on the increase in outstanding freshman grades
- ③ Improvement of recognition on Specialized/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 that are for troubled students
- ④ Improvement of recognition on Specialized/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 that are training for technical workers
- ⑤ Achievement of the Specialized/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 for educational purposes at the same time emphasizing the entering university and employment
- ⑥ Meet the desire for continue education opportunities and entering university for Specialized/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 ⑦ Easing the burden of learning for Specialized/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who wants to enter university
- ⑧ Increa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rofessional curriculum and raising of motivation
- ⑨ Improvement of teaching and instruction methods applying textbooks that used from teachers.
- ⑩ Improve the evaluation professionalism (ability to develop multiple choice questions) of Specialized/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류 대 성

수능 직업탐구 영역 시행 성과들의 영향 정도에 대한 수산·해운 전공 교사의 인식은 <Table 3>과 같다. 성과의 영향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항목은 ‘전문교과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선다형 문항개발능력) 신장’(4.53)이었으며, 그 다음은 ‘전문교과 교사들의 전통적인 교과서 중심 교수 학습 방법 개선’(4.03), ‘재학생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 및 현실적인 대학진학 욕구 충족’(4.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의 증가에 따라 학력 향상’(3.34)는 성과의 정도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항목들이 3.34이상으로 나타나 긍정적 성과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0이상으로 매우 또는 조금 성과가 있다고 나타난 항목은 3개이고, 나머지 일

<Table 3> Outcomes-Based Positive Effects of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average(standard deviation)

Reas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Variables	Industry	3.58(1.07)	3.34(1.16)	3.63(0.96)	3.58(1.19)	3.71(1.08)	4.00(0.98)	3.89(0.97)	3.87(0.96)	4.03(0.94)	4.53(0.82)	
	Busan (n=12) a	4.50(0.52)	4.33(0.49)	3.83(0.72)	4.00(0.85)	4.33(0.78)	4.50(0.52)	4.17(0.94)	4.17(0.94)	4.17(0.94)	4.67(0.49)	
	Incheon (n=27) b	3.56(1.09)	3.15(1.20)	3.67(1.18)	3.70(1.23)	3.70(1.27)	4.26(0.94)	4.04(0.76)	4.04(0.90)	3.96(0.85)	4.74(0.53)	
	Chungcheong (n=12) c	3.50(0.80)	3.67(0.98)	3.67(0.78)	3.67(0.98)	3.50(0.80)	3.67(0.78)	4.00(1.04)	3.67(0.49)	4.50(0.52)	4.83(0.39)	
	Gyeongsang (n=14) d	2.86(1.03)	2.57(1.09)	3.00(0.78)	2.86(1.29)	3.29(1.07)	3.14(1.17)	3.14(1.29)	3.00(1.11)	3.57(1.22)	3.86(1.29)	
	Jeolla/Jeju (n=11) e	3.64(1.21)	3.36(1.12)	4.09(0.70)	3.64(1.29)	3.82(0.98)	4.27(0.65)	4.09(0.54)	4.45(0.52)	4.09(0.94)	4.36(0.92)	
	F	4.53** a<d	5.05*** a<b, d	2.45	1.83	1.74	5.59*** a, b, e>d	2.87*	5.68*** a, b, e>d	1.77	3.90** b, c>d	
	under 10(n=18) a	3.44(0.86)	3.00(1.08)	3.67(0.69)	3.67(1.19)	3.67(0.69)	4.11(0.58)	4.00(0.84)	4.11(0.58)	3.89(0.76)	4.44(0.86)	
	over 10-under 20 (n=22) b	3.73(0.77)	3.36(0.90)	3.64(1.18)	3.64(1.18)	3.82(0.96)	4.00(0.98)	3.91(0.68)	3.91(0.92)	4.18(0.73)	4.55(0.51)	
	over 20 (n=36) c	3.56(1.32)	3.50(1.32)	3.61(0.96)	3.50(1.23)	3.67(1.31)	3.94(1.15)	3.83(1.18)	3.72(1.11)	4.00(1.12)	4.56(0.97)	
	F	0.35	1.12	0.02	0.15	0.15	0.17	0.18	1.02	0.50	0.11	
	Indus-try	Fisheries and Marine (n=45)	3.58(1.22)	3.27(1.23)	3.80(1.08)	3.51(1.41)	3.64(1.19)	3.96(1.11)	3.91(1.08)	3.89(1.07)	4.09(1.06)	4.53(0.92)
		Sailing and Engine (n=21)	3.48(0.75)	3.48(1.17)	3.38(0.67)	3.57(0.75)	3.86(0.79)	4.14(0.73)	3.86(0.79)	3.57(0.75)	3.86(0.65)	4.62(0.50)
		etc. (n=10)	3.80(1.03)	3.40(0.84)	3.40(0.84)	3.90(0.88)	3.70(1.16)	3.90(0.88)	3.90(0.88)	4.40(0.52)	4.10(0.88)	4.30(0.95)
		F	0.35	1.12	0.02	0.15	0.15	0.17	0.18	1.02	0.50	0.11
		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s(n=25)	3.92(1.04)	3.60(1.12)	3.72(0.89)	3.52(1.23)	3.80(1.12)	4.28(0.74)	4.12(0.78)	3.96(0.89)	3.96(0.84)	4.68(0.48)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n=51)	3.41(1.06)	3.22(1.17)	3.59(1.00)	3.61(1.18)	3.67(1.07)	3.86(1.06)	3.78(1.05)	3.82(0.99)	4.06(0.99)	4.45(0.94)	
	t	1.77	2.06*	0.80	0.80	0.00	0.80	1.78	0.78	0.57	0.27	
	Total (n=76)	3.58(1.07)	3.34(1.16)	3.63(0.96)	3.58(1.19)	3.71(1.08)	4.00(0.98)	3.89(0.97)	3.87(0.96)	4.03(0.94)	4.53(0.82)	

- Notes: 1) Reasons ① ~ ⑩
 ① Enhance recruiting competition according to the symptom mitigation to avoid the support and of the Specialized/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
 ② Improving achievement for Specialized/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 based on the increase in outstanding freshman grades
 ③ Improvement of recognition on Specialized/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 that are for troubled students
 ④ Improvement of recognition on Specialized/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 that are training for technical workers
 ⑤ Achievement of the Specialized/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 for educational purposes at the same time emphasizing the entering university and employment
 ⑥ Meet the desire for continue education opportunities and entering university for Specialized/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⑦ Easing the burden of learning for Specialized/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who wants to enter university
 ⑧ Increa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rofessional curriculum and raising of motivation
 ⑨ Improvement of teaching and instruction methods applying textbooks that used from teachers.
 ⑩ Improve the evaluation professionalism (ability to develop multiple choice questions) of Specialized/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2) Scale : 1 = No effects, 2 = rarely effects, 3 = common effects, 4 = a few effects, 5 = very well effects
 3) *** < .001, ** < .01, * < .05

급 가지 항목은 보통으로 나타나 긍정적 성과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가 거의 없거나 전혀 효과가 없다고 인식하는 항목은 없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4.0이상의 항목이 9개인 지역은 부산, 6개인 지역은 전라/제주, 4개인 지역은 인천, 3개인 지역은 충청으로 나타났으나, 경상은 4.0 이상의 성과가 하나도 없어 경상권은 성과들의 영향 정도가 다른 지역보다 낮게 나타났다. 각 성과들의 효과에 대한 권역별 평균을 비교해 볼 때 가장 효과가 높게 나타난 곳은 부산으로 각각 평균 4.27로 나타났으며, 가장 효과가 낮게 나타난 곳은 경상으로 평균 3.13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전체 평균은 3.82로 긍정적 과급 효과가 보통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에 따른 지역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부 못하고 문제아가 가는 학교라는 부정적인 인식 개선’, ‘재학생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 및 현실적인 대학진학 욕구 충족’, ‘전문교과의 중요성에 대한 재학생의 인식 증대 및 학습의욕 고취’의 항목의 경우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지원 기회 현상 및 미달 사태 완화에 따른 모집 경쟁률 제고’, ‘전문교과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 신장’의 항목은 .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직경력에 따라 살펴보면, 경력 10~20년 교사들의 반응이 3.87로 가장 높았으며, 경력 20년 이상의 교사들의 반응이 3.79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교사 경력에 따른 평균 차이가 크지 않았다. 성과에 따른 교사의 경력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없었다.

표시과목에 따라 살펴보면, 기타(식품가공, 냉동)가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항해·기관이 3.7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표시과목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성과에 따른 표시 과목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

은 없었다.

학교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마이스터고는 평균 3.96, 특성화고는 3.75로 나타났다. 성과에 따른 학교 유형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의 증가에 따라 학력이 향상되었다.’의 항목의 경우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시행에 의한 성과의 영향 정도가 수산·해운계열의 경우 특성화고보다 마이스터고에서 직탐의 성과 10개 항목 평균이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우수 신입생 유입 및 학력 수준 향상’ 항목은 유의미한 차이를 가질 정도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과제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계속 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수산·해운계열 전공 교사의 인식은 <Table 4>와 같다. 가장 큰 과제로는 ‘취업중심 설립 취지에 근거한 학교 정체성 혼란 가중’(2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대학입학전형자료로서 직업탐구 미반영’(24%), ‘직업탐구 영역의 수능 존속 여부에 대한 끊임없는 대외적 문제 제기(직업탐구 불필요론)’(16%),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졸업생 과다(응시인원 저조)’(13%), ‘대학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입학하는 신입 증가’(10%)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게 나타난 과제를 살펴보면 직업탐구 영역이 시행되면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중등학교 직업교육 정책 방향과 관련된 정체성에 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어서 이 과제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이 많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과제는 더 많은 대학에서 대학입학전형자료로서 직업탐구를 반영하여야 학교에서 전문교과 수업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고취되며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이 항목에 반

류 대 성

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수능 준비 교육과정 편성·운영 확대 등에 따른 학교의 입시기관화’,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학교 교육과정 파행 운영’, ‘학교 현장의 기계적 문항풀이 위주 수업 현상 심화’,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의 대학교육 부적응 문제’, ‘직업탐구 영역에 대한 직업교육단체와 학교 현장의 관심 저하’ 등의 반응률은 매우 낮거나 없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은 ‘대학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입학하는 신입생 증가’(50%), 인천은 ‘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대학입학전형자료로서 직업탐구 미반영’(30%), 충청, 경상, 전라/제주는 ‘취업중심 설립취지에 근거한 학교 정체성 혼란 가중’(33%, 57%, 36%) 항목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부산의 경우 국립 고등학교 1개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졸업생의 진로가 승선 취업으로 한정되어진 학교의 설립취지와 최근 마이스터고 지정과 함께 신입생의 입학 동기에 대한 교사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인천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며,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선 취업 후 진학 정책에 따라 취업 중심 학교 정체성 혼란에 관련된 교사들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교직 경력별로 살펴보면, 10년 미만은 ‘직업탐구 영역의 수능 존속 여부에 따른 끊임없는 대외적 문제 제기(직업탐구 불필요론)’(33%), 10~20년은 ‘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대학입학전형자료로서

<Table 4> The Most Problems1) of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N(%)

Reas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Total
Industry	Industry	22(28.9)	2(2.6)	2(2.6)	0(0.0)	8(10.5)	18(23.7)	10(13.2)	2(2.6)	12(15.8)	0(0.0)	76(100.0)
	Busan	2(16.7)	0(0.0)	0(0.0)	0(0.0)	6(50.0)	2(16.7)	0(0.0)	0(0.0)	2(16.7)	0(0.0)	12(100.0)
	Incheon	4(14.8)	0(0.0)	2(7.4)	0(0.0)	2(7.4)	8(29.6)	3(11.1)	2(7.4)	6(22.2)	0(0.0)	27(100.0)
	Chungcheong	4(33.3)	2(16.7)	0(0.0)	0(0.0)	0(0.0)	4(33.3)	2(16.7)	0(0.0)	0(0.0)	0(0.0)	12(100.0)
	Gyeongang	8(57.1)	0(0.0)	0(0.0)	0(0.0)	0(0.0)	2(14.3)	2(14.3)	0(0.0)	2(14.3)	0(0.0)	14(100.0)
	Jeunla/Jeju	4(36.4)	0(0.0)	0(0.0)	0(0.0)	0(0.0)	2(18.2)	3(27.3)	0(0.0)	2(18.2)	0(0.0)	11(100.0)
	under 10	2(11.1)	0(0.0)	2(11.1)	0(0.0)	2(11.1)	2(11.1)	4(22.2)	0(0.0)	6(33.3)	0(0.0)	18(100.0)
	over 10 ~ under 20	6(27.3)	0(0.0)	0(0.0)	0(0.0)	0(0.0)	12(54.5)	0(0.0)	2(9.1)	2(9.1)	0(0.0)	22(100.0)
	over 20	14(38.9)	2(5.6)	0(0.0)	0(0.0)	6(16.7)	4(11.1)	6(16.7)	0(0.0)	4(11.1)	0(0.0)	36(100.0)
	Fisheries and Marine	14(31.1)	0(0.0)	0(0.0)	0(0.0)	2(4.4)	15(33.3)	7(15.6)	0(0.0)	7(15.6)	0(0.0)	45(100.0)
	Sailing and Engine	4(19.0)	2(9.5)	2(9.5)	0(0.0)	6(28.6)	2(9.5)	2(9.5)	0(0.0)	3(14.3)	0(0.0)	21(100.0)
	etc.	4(40.0)	0(0.0)	0(0.0)	0(0.0)	0(0.0)	1(10.0)	1(10.0)	2(20.0)	2(20.0)	0(0.0)	10(100.0)
	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s	4(16.0)	1(4.0)	1(4.0)	0(0.0)	8(32.0)	4(16.0)	3(12.0)	0(0.0)	4(16.0)	0(0.0)	25(100.0)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18(35.3)	1(2.0)	1(2.0)	0(0.0)	0(0.0)	14(27.5)	7(13.7)	2(3.9)	8(15.7)	0(0.0)	51(100.0)
	Total	22(28.9)	2(2.6)	2(2.6)	0(0.0)	8(10.5)	18(23.7)	10(13.2)	2(2.6)	12(15.8)	0(0.0)	76(100.0)

Notes: 1) Reasons ① ~ ⑩

- ① Confusion identity of Specialized/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 centering employment
- ② Changing as admission authority due to prepare CSAT
- ③ Management of going side by side theory and practical training
- ④ Deepening of explanation items by rule on Specialized/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
- ⑤ Raise of entering students on Specialized/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 for entering university purposes
- ⑥ No reflecting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as entering data most universities in metropolitan
- ⑦ Excess students of entering university no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 ⑧ Maladjusted students of entering university no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 ⑨ Insistence of unnecessary about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 ⑩ Decreasing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in Specialized/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 and related organizations

직업탐구 미반영'(55%), 20년 이상은 '취업중심 설립취지에 근거한 학교 정체성 혼란 가중'(39%)의 항목에 가장 높은 반응률을 나타냈었다. 즉, 교직 경력이 길어질수록 직업탐구 영역에 대한 문제인식 항목이 대외적 문제 제기, 재학생의 진학을 위한 실질적인 직탐 점수 반영 여부, 학교 정체성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표시과목별로 살펴보면, 수산·해양은 '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대학입학전형자료로서 직업탐구 미반영'(33%), 항해·기관은 '대학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입학하는 신입생 증가'(29%), 기타는 '취업중심 설립취지에 근거한 학교 정체성 혼란 가중'(40%) 항목에 가장 높은 반응률을 나타내었는데, 표시 과목의 특성이 반영된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이스터고는 '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입학하는 신입생 증가'(32%), '취업중심 설립취지에 근거한 학교 정체성 혼란 가중'(16%), '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대학입학전형자료로서 직업탐구 미반영'(16%), '직업탐구 영역의 수능 존속 여부에 대한 끊임없는 대외적 문제 제기(직업탐구 불필요론)'(16%) 항목 순으로 반응하였고, 특성화고는 '취업중심 설립취지에 근거한 학교 정체성 혼란 가중'(35%), '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대학입학전형자료로서 직업탐구 미반영'(28%), '직업탐구 영역의 수능 존속 여부에 대한 끊임없는 대외적 문제 제기(직업탐구 불필요론)'(16%) 항목 순으로 반응을 나타내었다.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계속 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의 중요성 정도에 대한 수산·해운 계열 전공 교사의 인식은 <Table 5>와 같다. 과제의 중요성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대학입학전형자료로서 직업탐구 미반영'(4.00)이었으며, 그 다음은 '직업탐구 영역의 수능 존속 여부에 대한 끊임없는 대외적 문제 제기(직업탐구 불필요론)'(3.84),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의 대학교

육 부적응 문제'(3.61), '직업탐구 영역에 대한 직업교육단체와 학교 현장의 관심 저하'(3.61),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졸업생 과다(응시인원 저조)'(3.58)의 순이었고, 과제의 중요성 평균은 3.29로 비교적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충청, 경상은 '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대학입학전형자료로서 직업탐구 미반영'(3.50, 4.50, 3.71), 인천은 '대학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입학하는 신입생 증가'(4.33), 전라/제주는 '직업탐구 영역의 수능 존속 여부에 대한 끊임없는 대외적 문제 제기(직업탐구 불필요론)'(4.36)의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과 경상은 4.0이상인 항목이 없었다. 과제의 중요성 정도의 지역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의 대학교육 부적응 문제'의 경우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직업탐구 영역의 수능 존속 여부에 대한 끊임없는 대외적 문제 제기(직업탐구 불필요론)'과 '직업탐구 영역에 대한 직업교육단체와 학교 현장의 관심 저하'의 경우 .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취업중심 설립취지에 근거한 학교 정체성 혼란 가중',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학교 교육과정 파행 운영',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졸업생 과다(응시인원 저조)'의 경우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직 경력별로 살펴보면, 10년 미만은 '직업탐구 영역에 대한 직업교육단체와 학교 현장의 관심 저하'(3.89), 10~20년과 20년 이상은 '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대학입학전형자료로서 직업탐구 미반영'(4.00, 4.11)의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제의 중요성 정도의 교직 경력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학교 교육과정 파행 운영'의 경우 .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시과목별로 살펴보면, 수산·해양은 '수도권

류 대 성

대학 대부분이 대학입학전형자료로서 직업탐구 미반영'(4.16), 향해·기관은 '대학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입학하는 신입생 증가'(4.62), 기 타는 '직업탐구 영역에 대한 직업교육단체와 학 교 현장의 관심 저하'(4.00)의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제의 중요성 정도의 표시과목별 차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 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은 없었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 <Table 5> Outcomes1)-Based Positive Effects2) of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average(standard deviation)

고 모두 '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대학입학전형자 료로서 직업탐구 미반영'(3.92, 4.0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항목의 평균이 마이스터 고등 학교는 3.21, 특성화고는 3.33으로 나타났다. 직탐 의 과제에 따른 학교 유형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 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대 학 대부분이 대학입학전형자료로서 직업탐구 미 반영'의 항목의 경우 .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이는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계속

average(standard deviation)

Reas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ndus-try	Industry	3.08(1.37)	2.71(1.08)	2.58(1.17)	2.45(1.12)	3.45(3.42)	4.00(1.11)	3.58(1.30)	3.61(1.28)	3.84(1.21)	3.61(1.23)
	Busan (n=12) a	2.67(1.15)	2.50(1.00)	2.17(0.94)	2.17(1.11)	2.83(1.40)	3.50(1.31)	3.17(1.27)	2.67(0.98)	2.83(1.40)	2.67(1.44)
	Incheon (n=27) b	2.74(1.46)	2.67(1.24)	2.89(1.28)	2.26(1.06)	4.33(5.51)	4.07(1.27)	3.59(1.37)	4.04(1.22)	4.00(1.14)	3.59(1.19)
	Chungcheong (n=12) c	3.83(0.72)	2.33(0.49)	2.33(0.49)	2.67(0.78)	2.83(0.94)	4.50(0.52)	4.33(0.78)	4.33(0.78)	4.33(0.78)	4.33(0.78)
	Gyeongsang (n=14) d	2.86(1.51)	2.71(1.07)	2.00(1.11)	2.29(1.20)	2.71(0.91)	3.71(1.07)	2.86(1.29)	2.71(1.33)	3.57(1.22)	3.29(1.20)
	Jeolla/Jeu (n=11) e	3.82(1.33)	3.45(1.04)	3.27(1.27)	3.18(1.33)	3.55(1.04)	4.18(0.75)	4.09(1.14)	3.91(0.94)	4.36(0.92)	4.27(0.79)
	F	2.70*	1.88	3.12*	1.81	0.80	1.61	3.15*	6.87***	3.89**	4.54**
	under 10(n=18) a	3.33(1.28)	3.11(1.13)	3.33(1.28)	2.78(1.06)	2.89(0.90)	3.78(1.17)	3.44(1.29)	3.67(1.28)	3.67(1.37)	3.89(1.23)
	over 10~under 20 (n=22) b	2.91(1.41)	2.82(0.96)	2.55(1.01)	2.55(1.01)	3.18(1.05)	4.00(0.87)	3.45(1.26)	3.45(1.34)	3.73(1.24)	3.18(0.96)
	over 20 (n=36) c	3.06(1.41)	2.44(1.08)	2.22(1.05)	2.22(1.20)	3.89(4.86)	4.11(1.21)	3.72(1.34)	3.67(1.26)	4.00(1.12)	3.72(1.34)
	F	0.48	2.54	6.18***	1.61	0.60	0.54	0.41	0.21	0.59	1.98
	Fisheries and Marine (n=45)	2.73(1.42)	2.56(1.06)	2.36(1.11)	2.22(1.08)	2.98(1.25)	4.16(1.09)	3.56(1.39)	3.44(1.31)	3.98(1.16)	3.58(1.14)
	Sailing and Engine (n=21)	3.48(1.17)	2.71(1.06)	2.62(1.07)	2.43(0.87)	4.62(6.17)	3.86(1.20)	3.67(1.15)	3.95(1.24)	3.76(1.30)	3.48(1.47)
	etc. (n=10)	3.80(1.14)	3.40(1.07)	3.50(1.27)	3.50(1.27)	3.10(0.99)	3.60(0.97)	3.50(1.27)	3.60(1.17)	3.40(1.26)	4.00(1.15)
	F	0.35	1.12	0.02	0.15	0.15	0.17	0.18	1.02	0.50	0.11
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s(n=25)	2.96(1.31)	2.68(1.11)	2.52(1.19)	2.24(1.01)	3.68(4.21)	3.92(1.19)	3.56(1.26)	3.48(1.23)	3.72(1.34)	3.36(1.35)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n=51)	3.14(1.41)	2.73(1.08)	2.61(1.17)	2.55(1.17)	3.33(3.00)	4.04(1.08)	3.59(1.33)	3.67(1.31)	3.90(1.15)	3.73(1.17)	
t	-1.97	-0.18	-0.31	-1.18	-1.77	-3.76**	-1.03	-1.23	-1.92	-1.19	
Total (n=76)	3.08(1.37)	2.71(1.08)	2.58(1.17)	2.45(1.12)	3.45(3.42)	4.00(1.11)	3.58(1.30)	3.61(1.28)	3.84(1.21)	3.61(1.23)	

Notes: 1) Reasons ① ~ ⑩

- ① Confusion identity of Specialized/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 centering employment
 - ② Changing as admission authority due to prepare CSAT
 - ③ Management of going side by side theory and practical training
 - ④ Deepening of explanation items by rule on Specialized/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
 - ⑤ Raise of entering students on Specialized/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 for entering university purposes
 - ⑥ No reflecting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as entering data most universities in metropolitan
 - ⑦ Excess students of entering university no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 ⑧ Maladjusted students of entering university no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 ⑨ Insistence of unnecessary about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 ⑩ Decreasing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in Specialized/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 and related organizations
- 2) Scales: No importance(1), rarely importance(2), common importance(3), a few importance(4), very well importance(5)
- 3) *** < .001, ** < .01, * < .05

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의 중요성 정도가 수산·해운계열의 경우 마이스터고보다 특성화고에서 직탐의 과제 10개 항목 평균이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대학입학전형자료로서 직업탐구 미반영’ 항목은 유의미한 차이를 가질 정도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수능에 직업탐구 영역이 도입되어 시행된 지 만 10년을 넘어선 시점에서, 수산·해운계열 전공 교사가 인식하는 수능 직업탐구 영역 시행의 성과는 무엇이며 성과들의 영향 정도는 어떠한지,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계속 시행을 위한 과제는 무엇이며 과제들의 중요성 정도는 어떠한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5학년도 수능에 처음으로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된 이후, 지난 10년간 직업탐구 영역이 시행에 따른 성과는 ‘재학생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 및 현실적인 대학진학 욕구가 충족되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학생의 전문교과 중요성 인식 증대 및 학습의욕이 고취되었다.’,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강조하는 교육 목적이 구현되었다.’,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의 증가에 따라 학력이 향상되었다.’, ‘전문교과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선다형 문항개발능력)이 신장되었다.’, ‘지원 기피 현상 및 미달 사태 완화에 따른 모집 경쟁률이 제고되었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성과들의 영향 정도를 알아본 결과 성과의 영향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항목은 ‘전문교과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선다형 문항개발능력)이 신장되었다.’이었으며, 그 다음은 ‘전문교과 교사들의 전통적인 교과서 중심 교수·학습 방법이 개선되었다.’, ‘재학생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 및 현실적인 대학진학 욕구가 충족되었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계속 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취업중심 설립 취지에 근거한 학교 정체성 혼란 가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대학입학전형자료로서 직업탐구 미반영’, ‘직업탐구 영역의 수능 존속 여부에 대한 끊임없는 대외적 문제 제기(직업탐구 불필요론)’,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졸업생 과다(응시인원 저조)’, ‘대학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입학하는 신입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계속 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의 중요성 정도를 알아본 결과 ‘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대학입학전형자료로서 직업탐구 미반영’이었으며, 그 다음은 ‘직업탐구 영역의 수능 존속 여부에 대한 끊임없는 대외적 문제 제기(직업탐구 불필요론)’,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의 대학교육 부적응 문제’, ‘직업탐구 영역에 대한 직업교육단체와 학교현장의 관심 저하’,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졸업생 과다(응시인원 저조)’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수능 직업탐구 영역이 도입되어 시행된 지 만 10년을 넘어선 시점에서 수산·해운 전공 교사들이 인식하는 직업탐구 영역의 성과와 과제의 중요도 결과를 토대로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수능 직업탐구 영역 선택 경향과 이들의 학력 수준 등을 심층 분석하고 예측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특성화고 졸업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직업교육 정책의 변화와 함께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응시 인원이 줄어드는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Park, J. U. et al., 2015). 따라서 특성화고 졸업생 수가 줄고 취업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도 진학을 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Kim, J. H. et al., 2010).

둘째, 대학입학전형자료로서 수능 직업탐구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의 수를 늘려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에게 계속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써 대학 진학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으며 우수한 학생의 특성화고 유입으로 인해 특성화고 기피현상이나 미달 사태를 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문교과 중요성 인식이 증대되어 전문교과 교수·학습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Hahm, S. Y., 2013-2).

셋째,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정부차원의 취업 중심 정책과 학교차원의 취업중심 진로교육 및 교육과정의 정착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Park, J. U. et al., 2015). 그러므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진로교육의 유연성 확보(Choi, D. S. et al., 2011) 및 일반고의 직업교육 위탁, 특성화고의 진로전환 등의 학습경로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 현장에서 수능 직업탐구 영역과 관련된 교과목의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Hahm, S. Y., 2013-2). 학생의 진로는 변화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 취업이나 선 진학을 원하는 학생 모두를 함께 배려하는 학교 현장의 교육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References

Choi, D. S. · Lim, E. · Choi, S. J. · Jung, J. C.(2011). Increasing Flexibility of Pathway in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KRIVET.
 Hahm, S. Y.(2013-1). Perception on outcomes and challenges of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by industry department teacher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JFMSE, 25(5). 1148~1164.
 Hahm, S. Y.(2013-2). Change on the Characteristics of Applying Group for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in the CSAT by Industry Department Teacher's Perception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JFMSE, 25(6). 1389~1407.
 Kim, J. G. · Lee, S. J. · Kim, B. S. · Lee, K. H. · An, J. M.(2004). A Study on Developing Assessment Framework for Vocational Education Test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36(1), 69~87.
 Kim, J. G. · Lee, J. B.(2005).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Agricultural High Schools according to Vocational Education Test Establishment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37(4), 135~161.
 Kim, J. G. · Lee, G. N.(2014). Perception on th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by Agricultural Teacher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of Agriculture and Life Industry in Korea,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6(3), 1~27.
 Kim, J. H. · Kim, J. G. etc(2010). KICE issue paper of majors for 2010,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Nam, M. H.(2002). Investigating the Post-2008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Reform,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18(2), 17~33.
 Park, J. U. · Ryu, D. S.(2015). Perception on Changes of the Characteristics of Examinee's Group for the Elective Subjects of Fisheries and Shipping Industry in Vocation Education Division CSAT by Fisheries and Shipping affiliate Teachers, JFMSE, 27(1), 184~197.

-
- Received : 14 September, 2015
 - Revised : 01 October, 2015
 - Accepted : 12 October, 2015